



건물주들의 양심과 방화의식 개선 시급

「불은 좋은 종이지만, 그러나 나쁜 주인이다」 (영국 속담).

불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불은 저급한 동물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했다. 그리스의 신들 만이 향유하던 불을 인간에게 몰래 주었다는 죄목으로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불은 파괴적이다 못해 반문명적이기까지 하다. 불은 인류가 소중히 쌓아 올린 문명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인류의 생존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나폴레옹군에게 쫓겨가는 러시아군이 사용했다는 초토작전은 끔찍하기만 하다.

인류의 대제전이라는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스컴에서는 뜬나대로 올림픽을 맞는 시민의식이라든가 질서의식을 강조한



최 종 등
(한국일보기자)

다. 시내 중요한 곳에는 올림픽이 며칠 남았다는 표시판이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준다.接客업소의 시설과 서비스는 어떻고, 종업원이나 택시기사의 영어실력이 어떻고, 시내 교통체증이 어떻다는 등 모든 것이 올림픽으로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방화의식에 관한 문제만은 빠져있는 것 같

아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해서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금물이다. 불은 인간의 손을 벗어나기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다.

주변에 재떨이가 없다는 이유로 길가에 함부로 버리는 담배꽂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버려진 꽂초가 화재로 직결되는 비율은 극히 낮아서 무감각해지기 쉽다. 그러나 지난해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지하철역 화재사고의 원인은 담배꽂초였다. 또 지난해 중공에서 발생했던 큰 산불도 담배불이 원인이었다.

도심지 가로변에 설치된 휴지통 중에는 보기 흉하게 그늘러져 있는 것들이 가끔 눈에 띈다. 불붙은 꽂초를 휴지더미 속으로 버려서 대책없이 타버렸기 때문이다. 올림픽에 대비한답시고 가로

수를 단장하고 조경시설을 갖춰
놔야 소용없는 일이다. 시커멓게
그을린 휴지통이 주변환경과 어
울릴 리 만무하다. 시커멓게 타서
못쓰게된 휴지통은 결국 누구의
부담인가.

올림픽경기가 열리게 될 각 경
기장에는 수많은 내외국인이 찾게
될 것이고 이들이 버리고 갈 쓰레
기도 엄청날 것인데 담배꽂초를
잘못 버려 불이라도 나면 어쩔것
인가. 예전에 축구경기장에서 여
고생 응원단의 응원도구에 담배
불이 옮겨붙어 많은 여고생들이
화상을 입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
생하다.

담배꽂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
은 방화의식의 결여 뿐 아니라 공
중도덕심의 결여와 직결된 문제
다.

우리 나라는 화재에 관한 한 부
끄러운 기록을 하나 갖고 있다.
호텔화재 사상 세계 최고의 인명
피해를 냈다는 대연각호텔화재가
그것이다. 지난 71년 발생했던
이 사고는 호텔 2층 커피숍의 LP
가스 관리소홀로 인한 폭발에서
 비롯됐다. 이 사고로 죽은 사람
만도 1백63명이나 된다. 스티브
맥킨이 주연한 영화 「타워링」은
창피하게도 이 사고에서 소재를
얻었다 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
재사고는 天災가 아닌 人災다.
대연각호텔 화재도 한두사람의 부
주의만 없었더라면 엄청난 재산
과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
가 피해규모를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빌딩도 엄청나게 높아 졌
으며 빌딩내의 소방시설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방화의식은 얼마나 개
선됐는지 의심스럽다. 소방설비
를 「법규에 맞춰서 비치한 장식
물」정도로 생각하는 건축주나 설
비업자, 또는 소방관계자가 있다
면 그들이야말로 여러사람 죽일
사람이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도 관
리를 소홀히 해 엄청난 재산과 인
명피해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84년 부산 대아
호텔의 화재 때도 스프링클러 설
비를 아예 작동불능상태로 방치
해 두어서 피해가 더욱 늘어났다.

굳이 올림픽 핑계를 대지않더
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호텔,
백화점, 디스코텍 같은 대형 집
객업소의 종업원들은 특히 옥내
외의 소방시설 사용법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화재발생 가능성을 추정하는 화
재밀도로 비교해볼 때 우리 나라
는 좁은 국토에 건물, 주택, 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미국보다 30
배나 높다고 한다. 또 소방관수
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인구 9 백
50만명에 2천5백7명이 있으나,
인구 7백10만명의 뉴욕은 1만
3천1백4명이나 된다.뿐만 아니
다. 급증하는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도로증가율은 지지부진한 상
태에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만
성적인 교통체증으로 화재사고현
장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상당
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같은 조건을 따져보면 불이
한번 났다하면 어떠한리라는 것
은 진짜 불을 보듯이 환하다.

이럴수록 도심지의 대형건물은
완벽한 방화시설을 갖추고 수시
로 점검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

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울 시내의 괜찮다는 호텔의
방화시설도 관계기관이 점검해보
면 이상이 발견되곤 한다. 유명
호텔이 그럴진대 시장, 여관, 극
장, 유흥업소 등은 어떠한리라는
것은 뻔하다. 이들 업소들은 소
방시설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
라 의무화되어있는 소방점검마저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대형 화재사고의 단골로 지칭
되는 지하유흥업소, 호텔, 여관 등
은 소방법에서 커튼, 카페트.등을
방염처리된 것으로 바꾸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형식에
그치고 실내 미관을 이유로 가연
성 유독성 물질의 내장재를 사
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도난방지를 이유로 비상탈출
구를 잠가놓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은 잦은 고장
과 누수를 막기 위해 밸브를 잠가
놓는 등 비상시 아무런 도움도 주
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은 업주들의 양심
과 방화의식에 관한 문제다. 「설
마」라는 무감각이 대형 화재를 불
러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깨
달아야 할 것이다.

방화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불
을 조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
다. 그러나 이보다 가치있는 것
은 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앞서
도 말했지만 화재는 人災인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불조심 포어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꺼진 불도 다시 끄자」
로 말이다. (㉞)